

May 2017 subject reports

## Korean A Literature

### Overall grade boundaries

#### Higher level

<b>Grade:</b>	1	2	3	4	5	6	7
<b>Mark range:</b>	0-19	20-35	36-46	47-59	60-72	73-84	85-100

#### Standard level

<b>Grade:</b>	1	2	3	4	5	6	7
<b>Mark range:</b>	0-16	17-30	31-43	44-56	57-67	68-79	80-100

### Higher level internal assessment

#### Component grade boundaries

<b>Grade:</b>	1	2	3	4	5	6	7
<b>Mark range:</b>	0-5	6-10	11-13	14-17	18-21	22-25	26-30

### 제출된 작품의 범위와 적합성

Commentary 의 시 작품은 주로 윤동주, 정지용, 신경림, 김수영의 시가 대부분이었고 김광균, 김광섭의 시가 그 다음을 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윤동주의 시 작품을 공부한 학교가 많았다. 대부분 알맞은 길이의 시들로 학생들이 발표를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시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짧은 경우 분석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수영의 시 ‘피아노’는 4연 32행으로

학생이 효과적으로 해석하고 발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긴 시의 경우에는 일부만 발췌해서 출제가 가능하다.

**Discussion** 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여럿 있었는데 우선 다양한 시대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볼 수 있었다. 작년에 주로 다루어졌던 현진건, 김동인, 김유정들의 근대소설 작품들도 볼 수 있었고 허균, 박지원 등 조선시대 문학은 물론 공지영, 박경리, 이문열 등의 현대소설들도 다루어졌다. 유치진을 비롯한 차범석과 오태석 등 여러 작가들의 희곡작품들이 다루어졌다는 것도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특히 이근삼의 ‘원고지’가 많이 다루어졌다. 수필 장르로는 피천득의 작품이 주를 이루었고 범정의 작품도 다루어졌다.

## 각각의 평가기준에 대한 학생의 성과

### Criterion A: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poem

선택한 작품에 대한 개인적 해석이 두드러지고 그 해석에 대한 근거 제시도 잘 되어 있는 **commentary**를 여럿 볼 수 있었으나 여전히 시인의 생애나 역사적 배경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거나 표면적인 지식들을 나열하는 **commentary**들도 있었다. 외운 단편적인 지식의 나열만으로는 발췌된 시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없다. 시의 형식과 내용을 잘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을 시에서 근거를 찾아 조리 있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혹 본인이 발표하는 단어의 정확한 뜻도 모른 채 여러 자료에서 외워 발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발표과정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개인의 이해를 드러내지 못한다.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발표는 듣는 이에게 설득적으로 다가오며 발표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 좋은 점수로 이어질 수 있다.

### Criterion B: Appreciation of the writer's choices

시에 드러난 문학적 장치나 특징들을 시와 연결시켜 통합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분리하여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시의 전체적 맥락에서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시의 형식이 어떻게 내용적인 면과 잘 부합해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 Criterion C: Organiz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commentary

일관성 있고 시작과 결말이 뚜렷한 발표들이 여럿 있었지만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은 용두사미 식의 발표를 하고 있다. 시작은 좋았으나 마지막 행의 분석을 끝으로 적절한 마무리 없이 발표를 마치거나, 시작 부분에서 본인의 발표에 대한 구성을 미리 제시했지만 그 구성을 잘 지키지 못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었다. 또한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행별로 분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형식과 내용의 적절한 조화가 좋은 **commentary**를 만들 수 있다.

### Criterion D: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work used in the discussion

교사의 질문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이고 대략적인 작품의 소개가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줄거리를 설명하고 주제를 소개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작품의 직접 인용을 들어 가며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작품 속 근거를 들어 답을 해야 한다. 작품의 단편적인 줄거리나 사건 위주의 토론은 바람직하지 않다.

### Criterion E: Response to the discussion questions

주어진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해 학생들이 답변을 머뭇거리거나 엉뚱한 대답을 할 때 교사가 질문을 이해시키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효과적인 토론이라 하기 어렵다. 토론 질문은 짧고 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의 긴장 완화를 위해 기본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깊이 있는 것들로 이끌며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이런 상황이라면 학생은 어떻게 하겠어요?” 혹은 개인적인 감상을 묻는 질문들도 피해야 한다.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끄는 토론이 효과적인 것이다.

### Criterion F: Language

읽는 것과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commentary**에서는 마치 읽는 듯한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발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발표시 잦은 외국어 사용이나 전문용어의 사용 오류, 발표에 어울리지 않는 어휘의 사용등은 주의해야 한다. 평서문으로 발표를 마치고 교사의 질문에는 존댓말로 하는 것 또한 자연스럽지 못하다. 발표는 듣는 대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구어체 존댓말로 해야 한다.

### 다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조언과 길잡이

IB Subject Guide 와 **feedback form** 을 항상 살피도록 해야 한다. 매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feedback form** 을 참고하는 것으로 수정될 수 있다.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문학은 그 해석에서 많이 열려 있고 개인의 독창적인 분석을 요하는 과목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수업보다는 토론과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commentary** 부분과 **discussion** 부분을 자연스럽게 20 분 동안 이어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시간을 안배하는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보인다. 간혹 학생의 **commentary** 가 8 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학생의 점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교사는 학생의 **commentary** 가 8 분 가량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발표 녹음 시작 전 학교이름이나 번호, 본인들의 이름이나 번호는 더 이상 녹음에 포함되지 않음을 학생들에게 분명히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머뭇거리며 못하거나 답변을 시작하고 마무리를 못한다고 하여 교사들이 대신 답을 해주고 학생은 그저 동의만 하거나, 학생의 아주 짧은 답변에 교사가 대신 부연설명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학생에게 생각할 시간을 더 주거나 질문을 약간 바꾸어 제시해 주면 좋을 것이다.

## Standard level internal assessment

### Component grade boundaries

<b>Grade:</b>	1	2	3	4	5	6	7
<b>Mark range:</b>	0-4	5-8	9-12	13-16	17-19	20-23	24-30

### 제출된 작품의 범위와 적합성

시와 단편소설, 수필장르가 많이 다루어 졌는데 그 중에서도 시가 가장 많았다. 여전히 김소월, 윤동주 시가 가장 많았고 서정주, 한용운, 정지용, 김수영의 시도 꽤 있었다. 수필로는 대부분 피천득의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고, 소설로는 현진건, 황순원, 윤홍길의 작품들이 많았다. 발췌문은 대부분 적절했으나 서정주의 시 ‘문둥이’는 5 행의 짧은 시로 학생들이 8 분 동안 분석발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발췌문 위주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른 작품과 비교 분석이 주를 이루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시험의 성격상 적절하지 못하다. **School-supported self-taught (SSST)** 학생 중에 작품을 **PLA**에 없는 작가의 작품을 선택하거나 번역문학을 택해 발표한 학생들이 있는데 **Literature school-supported self-taught alternative oral assessment procedures**에 의하면 작품은 반드시 **PLA**에 있는 작가의 작품 중에 선택해야 한다.

### 각각의 평가기준에 대한 학생의 성과

#### Criterion A: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extract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발췌문의 지식과 이해는 발췌문 중심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간혹 두 시를 비교 분석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주어진 시를 중심으로 발표해야 한다. 이것은 소설과 수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어진 발췌문이 전문이 아닌 경우 발췌문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체 작품을 토대로 발표에 임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발췌문을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러나는지 근거를 들어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 단편적이고 표면적인 분석은 좋은 점수로 이어지기 어렵다. 특히 소설의 경우 줄거리 위주로 발표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는 작품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어렵다. 시의 경우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이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나 작가의 배경에 대해 발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 학생들도 있었는데 발췌문과 직접적인 연관성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 Criterion B: Appreciation of the writer’s choices

매년 지적되는 것이나 올해도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던 **Criterion**이었다. 제시된 발췌문의 문학적 장치를 다루는 **Criterion** 인데 특히 시의 경우 여러 기술적 용어를 언급하고 있으나 그것이 어떻게 내용과 부합해서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지까지 발전시키는 데 미흡함이 있었다. 또한 내용이나 주제와 상관없이 장르나 문학용어의 독립적 설명은 좋은 점수로 이어지기 어렵다. 설명하는 용어나 장치의 사용이 발췌문의 분석과 연관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발췌문에서 제시된 내용과 주제가 어떠한 형식적 틀이나 장치를 통해 보여지는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Criterion C: Organization and presentation

작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발췌문 분석에 앞서 작가의 삶이나 시대, 역사적 배경을 상당부분 설명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발췌문 분석에 도움이 된다면 분석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소설의 경우 제시된 발췌문과 무관하게 작품 전체의 줄거리 위주로 흐름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발췌문 중심으로 내용과 형식을 파악하고 발표하여야 한다. 어떤 특정한 발표구성의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소주제로 나눠 발표하는 경우에 그 흐름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지막 단락이나 마지막 연의 분석을 발표의 앞부분에 배치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효과적인 분석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작품과 비교분석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발췌문

분석에 효과적이라 판단된다면 언급할 수는 있으나 다른 작품 분석에 상당 부분 발표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좋은 방식이라 할 수 없다.

**Criterion D: Language**

대부분 발표에 적절한 언어의 사용을 보였다. 본인의 발췌문에 대한 이해를 장르적 특징에 맞게 알맞은 단어를 사용하여 발표하였다. 발췌문과 함께 미리 준비한 듯한 대본을 올린다는가 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올해는 없었지만, 읽는 것과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같은 부분을 그대로 반복해서 읽는다거나, 전체 발표가 시종일관 한 톤으로 유지되다가 교사의 질문에 전혀 다른 톤과 다른 결의 언어로 대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어렵고 전문적인 단어의 나열이 꼭 좋은 점수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본인이 이해한 바를 본인의 언어로 논리적으로 발표하면 된다. SSST 학생들중에서 평어체로 IOC 와 IOP 를 발표한 학생들이 꽤 있었는데 존댓말로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조언과 길잡이**

교사들은 IB Subject Guide 와 feedback form, subject report 를 항상 살피도록 해야 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feedback form 을 참고하는 것으로 수정될 수 있다.

문학은 개인의 감상과 이해 및 분석이 중요한 과목이다. 본인의 이해를 논리적인 흐름으로 발표하는 시험의 취지에 맞게 수업과정에서 학생들의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토론을 통해 이끌어 내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시간 분배는 예년에 비해 많이 나아졌으나, 여전히 8 분의 commentary 를 채우지 못한 학생들도 있었다. 특히 SSST 학생중에 IOC 만 15 분 가량하고 IOP 가 생략된 경우도 있었다. 각각 10 분으로 20 분 가량의 발표가 끊임없이 녹음되어야 한다. 시간 제한은 점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반드시 시간에 맞춰 발표를 구성해야 한다.

이번 시험부터 익명성을 강조하여 moderator 가 학교, 학생의 정보없이 채점하는데, 간혹 학교와 이름을 언급하고 발표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발표에는 언급하지 않으나 업로드된 발췌문이나 guiding questions 에 학교 로고나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음부터 이점을 유념해 모든 업로드되는 자료에 학교나 학생이름이 노출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guiding questions 는 어디까지나 학생에게 commentary 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으로 학생이 guiding questions 에 답하는 형식의 commentary 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학생의 commentary 부분에서 guiding questions 에 대한 답이 설명되었다면 subsequent questions 에서 guiding questions 를 반복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Higher level and standard level written assignment**

**Component grade boundaries**

<b>Grade:</b>	1	2	3	4	5	6	7
<b>Mark range:</b>	0-6	7-9	10-12	13-15	16-18	19-20	21-25

## 제출된 작품의 범위와 적합성

학생들이 선택한 번역문학 작품은 대부분 PLT 지정작품들이었으나 여전히 몇몇 학교들은 PLT 목록에서 이미 제외된 작품을 선정했거나, 심지어 한국문학 작품을 선정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선택한 번역작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특정작품에 한정되어 **Essay**의 주제와 논점들이 중복된 경우가 많았다.

가장 많이 선정된 번역문학 작품은 [이방인], [인형의 집], [세일즈맨의 죽음], [연을 쫓는 아이] 그리고 [향수]였다. 특히 [이방인]의 경우 '죽음'과 '부조리'에 대한 연구, [인형의 집]은 19세기 여성의 사회문제와 인물의 상징이 주요 주제로 선정되었으며, [연을 쫓는 아이]는 죄의식이나 참회에 대한 주제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철학과 인문학의 개념과 연관된 분석의 글도 있었지만 철학/인문학적 개념들을 장황하게 서술했거나 작품과 연관된 주제를 선정했다더라도 핵심 몇몇 부분만 제시하여 타당성이나 설득력이 부족한 에세이들도 있었다. 학생들의 주관적 관점이나 독창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부분, 전반적인 에세이의 주제가 유사한 부분, 논점을 뒷받침 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나 예시 부분에서 아쉬움이 컸다.

중편 소설 한 편이나, 짧은 단편 한 편만 분석하여 **Essay**를 작성한 학교도 있었는데, 분석할 작품의 분량이 부족할 경우 작품에 대한 이해를 충분하게 보여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충분한 길이의 작품을 읽고 분석할 수 있도록 교사의 안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서는 IB에서 **guide book**을 통해 규정한 **work**의 개념을 명확히 인지하고 시행해야 한다. (1work = 장편:1, 중편: 2편 이상, 단편: 5-10편, 수필: 5-8편, 시: 15-20편 이상)

전반적으로 **Essay**는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었고, 구성과 전개 부분에서 작년보다 향상된 부분이 보였으나 주제가 모호한 탓에 구체적인 논점이 드러나지 않은 글들이 있었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 설정된 문학적 요소 (장치, 상징적 의미 등)를 해석하여 나열하는 데 그친 **Essay**들이 있었다. 또한 작품 내용 및 문학적 요소들의 요약정리로 구성된 에세이도 많았다. **Part 1**은 단순한 번역문학의 문학적 장르에 대한 이해가 아닌, 문학과 사회, 그리고 개인에 이해와 융합을 통한 포괄적인 의미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교사는 이를 위해 학생을 독려할 수 있어야 한다.

## 각각의 평가기준에 대한 학생의 성과

1. 단어수(word count) 규정에 맞게 과제를 수행한 학교가 대부분이었으나, 여전히 **Character count**에 맞춰 과제를 수행한 학교와 **1.3 word count**로 과제를 수행한 학교들도 있었다. 반드시 IB에 규정된 **word count**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Coordinator's notes May2017:p9)

2. word count에 포함되는 항목 (RS: 300- 400 word. WA: 1200 -1500 word)

- 서론
- 본론
- 결론
- 인용문

3. word count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승인 (acknowledgements)
- 참조어 (삽입구 또는 numbering 포함)
- Footnote or endnotes (각주 및 미주에 한함)
- 참고 문헌 일람표 (bibliography)
- 부록 (appendices)



**Self-taught** ; 논문 초록 형식으로 RS 를 작성하되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과 미사여구적 반응을 진술하거나, 작품의 재서술 혹은 **Essay** 를 요약하는데 그치면 안된다. 선택한 문학 작품에 대한 자신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의 이해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주제선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 Criterion B: Knowledge and understanding

지식과 이해 항목에서는 학생이 선정한 주제의 범위와 특성을 얼마나 수준있게 다루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전반적으로 작품의 내용이나 주제는 잘 알고 있으나 통찰력있는 이해를 보여주고 논점을 분명히 제시한 에세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주제의 선정은 적절했지만 줄거리를 요약하거나 문학장치의 모든 요소를 여러 문단으로 나누어 거론했거나 작품의 외적 정보에 치중한 에세이가 대부분이었다. 이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려면 문학작품의 문화 사회적 맥락에 대한 학생의 주관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로 확장되어가는 분석적인 글이어야 한다.

### Criterion C: Appreciation of the writer's choice

작가의 의도에 따라 설정된 문학적 요소(언어,구조, 장치 및 상징적 의미 등)를 파악하고 해당 요소를 선정한 이유와 그 안에 내재된 의미들이 작품의 주제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학생이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했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다수의 **Essay** 가 문학적요소의 상징과 의미를 해석하고 있지만 작품 속에서 어떤 효과를 지니는가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문학적 요소가 사용된 작품의 일부를 예시문을 통해 보여주는데 그친 글도 있었다. 작품에서 문학적 요소는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될 수는 없다. 문학적 요소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접근이야말로 포괄적으로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구체적 예시를 통해 설득력있는 논증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Criterion D: Organization and development

잘 구성된 **Essay** 는 서론에서는 글의 논점과 방향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본론에서는 이를 입증해나가는 분석적 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정리,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논점을 드러내기 위해 효과적인 근거를 작품 속에서 찾아 제시해야 한다. 작년에 비해 에세이 구성이나 아이디어 확장 측면에서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Essay** 도 많았으나 작품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단순 나열하거나 서술자와 작가를 혼용하여 작품을 분석한 서술이 많아 논점이 흐려지고 설득력이 부족한 **Essay** 또한 다수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주제를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제시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Essay** 의 형식을 갖추고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통해 논증의 전개 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Criterion E: Language

학생들의 언어는 예년보다 수준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와 문장 내 호응이 부적절하여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글들이 있었다. 또한 지나치게 전문적인 용어나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려다 오히려 글의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예도 있었다. 전문적이고 어려운 단어를 많이 구사한다고 해서 수준 높은 **Essay** 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의미의 전달과 설득력있는 전개를 위해 적절한 단어와 문장의 사용이 요구된다.

## 다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조언과 길잡이

1. **Part1** 의 목적은 예술, 철학, 사회, 역사, 과학 등 다양한 각도와 관점에서 다른 문화권의 작품을 이해하고 바라보려는 데 있다. 따라서 교사는 그 작품이 가지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통해 학생이 문학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면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 개인의 문화적 경험을 작품과

연결하여 문화/사회적 맥락이 문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등 다각도에서 작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가이드북의 지침에 따라 번역문학의 학습 목적과 그 방향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것이다.

2. **Essay**의 내용과 논점을 명확히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제목을 사용하고,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Academic Honesty**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주제에 대한 주관적이고 독창적인 주장을 일관성있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나 논점들이 필요하다. 의미없는 장문의 본문 인용은 지양하고 각주, 참고자료 목록 및 자료 인용 규칙을 정확히 따른다. 또한 에세이의 목차 페이지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3. **Reflective Statement** – 문화/사회적 맥락에서 작품에 대한 이해가 토론 과정을 통해 어떻게 확장되었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토론 과정의 정리나 개인적 감상, 작품의 외적 정보 나열, 줄거리 정리, 에세이의 요약은 적절한 **RS**가 될 수 없다.

4. 작품의 선정은 반드시 **PLT**를 참고해야 한다. 해마다 변동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해 **IBO**에 업로드된 **PLT**를 확인하여 오류가 없도록 주의한다.

5.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가이드북에 제시된 **Work**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규정을 준수한다.

6. 새로 변경된 **Uploaded**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한다.

## Higher level paper one

### Component grade boundaries

Grade:	1	2	3	4	5	6	7
Mark range:	0-4	5-8	9-10	11-12	13-15	16-17	18-20

###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드러난 프로그램과 시험의 영역

**Paper 1** 시험에서 학생들은 각 제시문의 내용 및 문학적 장치들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통일성 있는 구성 및 전개를 갖춘 직렬적 구성의 **commentary**를 작성해야 한다. 예년에 비하여 이러한 시험 형식을 적절히 인지하고 서론 및 결론을 적절히 갖추어 쓰려 노력한 학생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본론 부분의 내용을 살핀 바, 분석한 바들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서술하여 전체적인 구성 및 전개에 있어 논리성이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commentary**들이 많았다. **commentary**를 작성할 때에는 단지 형식적으로 서론과 결론만 넣어 쓸 것이 아니라, 글의 전체 구성 및 전개가 논리성과 통일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예년에 비하여 제시문에 나타나는 분위기 및 상황을 적절히 이해한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그에 반해, 장르마다 필수적으로 분석해야 할 문학적 장치들이 무엇인지를 몰라 다양한 문학적 장치 분석을 시도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 그리고 문학적 장치를 분석할 때에는 각 장치들이 제시문의 내용 또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하는데 단순히 설정된 장치에 대한 언급만 하거나 참고서 등에 나오는 일반적 이론 서술에 그친 채 깊이 있는 분석까지는 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

## 학생들이 잘 준비한 것으로 드러난 프로그램과 시험의 영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년에 비하여 제시문에 나타나는 분위기 및 상황을 적절히 이해한 학생들이 많았다. 이러한 적절한 상황 판단을 바탕으로 제시문을 통하여 작가가 나타내려 하는 바 또는 작품의 주제까지를 적절히 도출한 학생들이 많았으며 사회적 배경과도 연관 지어 작가의 의도를 이해한 학생들이 많았다. 또한, 예년에 비하여 띄어쓰기를 포함한 문법 또는 어법을 준수한 학생들이 증가하였으며, 문학적 용어를 적절히 사용하는 학생들 또한 증가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학생들은 글 전체의 구성 및 전개를 더욱 논리적이고 설득적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언어 표현력의 향상은 **commentary**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 학생들이 각 문제를 대하는데 있어서의 강점과 약점

### 1 번 문제(산문)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제시문은 소설에서 발췌된 것으로서, 많은 학생들이 제시문에 나타나는 분위기와 인물 간의 갈등 관계를 적절히 파악하였다. 또한, 유사한 면모를 보이는 인물을 한데 묶거나 그렇게 한데 묶인 무리 간의 갈등의 원인을 상반된 가치관에서 찾으려 노력한 학생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에 비하여, 갈등의 중심에 놓이거나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소재에 대한 분석을 적절히 그리고 깊이 있게 하지 못한 학생들 또한 많았다.

문학적 장치 분석에 있어서는, 예년에 비하여 문학적 용어를 적절히 사용하며 분석 내용을 서술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필수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문학적 장치를 놓치지 않고 보다 꼼꼼히 분석해야 하겠으며, 제시문의 내용 또는 작품의 주제를 표현하는 데에 있어 각 장치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한다.

### 2 번 문제(운문)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시에 나타나는 분위기 및 전반적인 상황을 적절히 파악한 학생들이 많았다. ‘슬픔’과 ‘기쁨’에 대한 시적 화자의 인식이 그 두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다는 점 또한 적절히 인지한 학생들도 많았다. 그런데 시어 및 시구 또는 상징적 소재 등의 의미를 부분적으로 잘못 분석한 학생들이 매우 많았다. 물론, 지엽적인 분석 오류를 범하였더라도 전체 시의 주제는 적절히 파악한 학생들이 많았지만, 앞으로 시험을 치를 학생들은 낱말의 시어, 시구, 소재 등의 의미를 보다 적절히 유추 또는 도출하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의 분위기 및 상황 등의 내용적 측면을 적절히 파악한 학생들이 많은 데에 비하여 시를 분석할 때에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장치들을 꼼꼼히 분석하지 않은 학생들도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 시험을 치를 학생들은 장르에 대한 이론을 보다 꼼꼼히 학습하여 깊이 있고 적절한 문학적 장치 분석을 하도록 해야 하겠다.

## 다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조언과 길잡이

첫 번째 항목에서 언급하였듯이, 글의 전체 구성 및 전개를 보다 논리적이고 통일성 있으며 효과적으로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할 것을 권한다. 문학 작품의 내용 및 장치 등의 분석을 한 후에는 반드시 그러한 낱말의 분석 내용을 어떠한 식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한 편의 **commentary**로 작성할 것인지 학생들 스스로 개요를 작성하도록 격려하여 주면 좋을 것이다. 학생들이 개요를 작성하는 연습을 수 차례 반복하면 단시간 내에 적은 표현만으로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개요를 작성하는 나름의 요령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commentary** 를 쓸 때에는 반드시 스스로 작성한 개요대로 쓰도록 지도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문학적 장치 등을 다루는 장르 이론에 대한 학습을 보다 꼼꼼하게 하도록 격려하여 줄 것을 권한다. 그리고 각 장르의 이론을 학습할 때에는 반드시 예시 작품 또는 제시문을 통하여 장치들의 효과를 학생들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교사들이 지도, 격려하여 줄 것을 권한다.

Standard level paper one

Component grade boundaries

Grade:	1	2	3	4	5	6	7
Mark range:	0-2	3-5	6-8	9-11	12-14	15-17	18-20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드러난 프로그램과 시험의 영역

Paper 1 시험은 선택한 제시문을 읽고 그것의 내용 및 설정된 문학적 장치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한편의 commentary로 작성하는 것이다. 즉, 논리적이고 통일성 있는 구성 및 전개를 갖춘 직렬적 구성의 commentary를 학생들은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지에 있는 도움 문제들에 대한 답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늘어놓거나, 서론과 결론을 갖추지 않은 commentary들이 많았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서론과 결론을 갖춘 한편의 commentary로 보이지만 내용을 읽어 보았을 때 전체적인 구성 및 전개에 있어 논리성이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commentary들이 많았다. 학생들은 단지 형식적으로 서론과 결론을 넣어 쓰기보다는, 글의 전체 구성 및 전개가 논리성과 통일성을 갖추도록 하여 자신이 분석한 내용을 보다 설득적으로 전달하는 글을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문제지에 제시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은 잘 구성된 한편의 commentary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해야 한다.

다양한 문학적 장치 분석을 시도한 학생들이 예년에 비하여 많았다. 그런데 문학적 장치에 대하여 분석할 때에는 단순히 어떠한 장치가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만 쓸 것이 아니라 각 문학적 장치가 제시문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즉 각 장치의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석해야 한다. 또한, 분석할 때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문에서 찾아서 명시하고 그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장치 분석을 시도한 학생들이 예년에 비하여 많았지만 장치들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깊이 있게 한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적었다.

학생들이 잘 준비한 것으로 드러난 프로그램과 시험의 영역

제시문들의 분위기 및 내용을 잘 파악한 학생들이 많았다. 그리고 제시문의 내용을 내재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분석한 이후에, 역사적 배경 또는 사회적 분위기와 연관 지으며 분석하는 반영론적 관점에서의 접근 및 분석까지 시도한 학생들도 많았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년에 비하여 다양한 문학적 장치 분석을 시도하고, 다양하고 적절한 문학적 용어를 사용하는 학생의 수가 예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학적 장치들의 효과를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다양한 장치에 대한 언급과 분석의 시도를 한 학생들이 많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번 학년도의 학생들 중 다수가 각 장르에 대한 이론을 전반적으로 잘 학습하였고, 이와 더불어 역사적 배경 지식까지 적절히 갖춘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각 문제를 대하는데 있어서의 강점과 약점

1번 문제(산문)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제시문은 소설에서 발췌된 것으로서, 많은 학생들이 제시문에 나타나는 분위기와 그러한 분위기가 전쟁의 잔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잘 파악하였다. 그리고 인물의 심리 상태까지 잘 파악한 학생들도 많았다. 그런데 제시문에 나오는 '기다림'의 의미와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파악을 적절히 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 이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에 나오는 기타 상징들에 대한 이해 및

분석이 적절하고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작은 표현들까지 놓치지 않고 포착,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각 상징들 및 표현들 간의 연관성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여 결국 '기다림'의 의미와 제시문의 정확한 주제(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

문학적 장치 분석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분석하려 노력한 학생들이 많았으며, 문학적 용어 또한 적절히 사용하는 학생들 또한 많았다. 그런데 이처럼 문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치 분석을 시도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에 비하여 각각의 문학적 장치가 주제(제시문을 통하여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거나 독자들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데에 주는 구체적 효과에 대하여 깊이 있게 분석한 학생들은 적었다. 문학적 장치에 대하여 분석을 할 때에는 참고서 등에 나오는 장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그대로 옮겨 쓰듯이 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상황 및 주제와 연관시키며 각 장치들의 효과를 더욱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한다.

## 2 번 문제(운문)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시에 나타나는 분위기, 시적 화자의 상황 및 심리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고, 은유적 또는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현대인(인간)들의 특징까지 잘 파악한 학생들이 많았다. 이처럼 시에 나타나는 전반적 분위기와 의미를 적절히 파악한 학생들이 많았던 반면에, 놓치지 말고 파악해야 할 시어 및 시구 등의 표현에 대한 분석을 꼼꼼히 하지 않은 학생들 또한 많았다. 시의 전체적 의미 파악은 반드시 낱말의 시어 및 시구, 상징 등의 의미 파악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시의 주제를 도출한 학생들이 적어 아쉬웠다. 이는 주제 도출뿐만 아니라 글의 논리적 구성 및 전개와도 연관된 바이다.

장르에 대한 지식과 문학적 용어를 충분히 습득한 학생들이 많았으며, 다양한 장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런데 앞선 1 번 문제에 대한 내용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장치들의 효과를 주제 및 작가의 창작 의도와 연관 지어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올해에는 이러한 점에서 아쉬운 **commentary** 들이 많았다.

## 다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조언과 길잡이

시작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aper 1** 시험은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직렬적 구성의 **commentary** 를 작성하는 시험이다. 그런데 문제지에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답만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거나, 아예 각 문제들의 번호를 붙이며 별개의 답안으로 작성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아마 시험 형식이나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이로 인하여 학생들이 낮은 점수를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사들 또는 **IB coordinator** 등이 적절한 안내를 해 주어야 하겠다.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한 편의 **commentary** 형식으로 작성된 글의 경우에도 내용을 읽어 보면 글 전체 구성 및 전개에 있어 논리성 및 통일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항상 개요를 작성한 후 **commentary** 를 작성하는 연습을 많이 하도록 격려해 주면 학생들이 보다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글을 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학적 용어를 적절히 사용하고 다양한 문학적 장치의 분석을 시도한 학생들이 많았다. 그런데 장치들에 대한 분석 내용은 피상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주제 또는 작가의 창작 의도와 연관된 장치들의 효과까지 깊이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이어야 한다. 각 장르의 이론을 공부할 때에 반드시 예시 작품 또는 제시문을 통하여 이론에 나오는 장치들의 효과를 학생들이 스스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지도, 격려하여 줄 것을 권한다.

## Higher level paper two

### Component grade boundaries

<b>Grade:</b>	1	2	3	4	5	6	7
<b>Mark range:</b>	0-4	5-8	9-11	12-15	16-18	19-22	23-25

## Standard level paper two

### Component grade boundaries

<b>Grade:</b>	1	2	3	4	5	6	7
<b>Mark range:</b>	0-4	5-8	9-11	12-14	15-16	17-19	20-25

###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드러난 프로그램과 시험의 영역

전반적으로 **Criterion B**에 해당하는 비교와 대조의 방식으로 답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각각의 작품에 대한 분석은 다루고 있으나 두 작품을 연관지어 답을 구성하는 부분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많이 나아지긴 하였으나 여전히 문학적 장치의 사용인 **Criterion C** 영역에서도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줄거리 위주로 흐르는 글에서 이 **Criterion**을 만족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적절하게 이 작품/작가만의 **literary conventions**를 밝히고 그 효과에 대해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작품 혹은 질문과 무관하게 미리 준비한 듯한 장르적 특징을 서론에 길게 설명하는 것은 질문에 대한 답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아닐뿐더러 **Criterion C**에서도 이것만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 매년 경어체로 답을 구성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에세이에는 적합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두 작가의 작품으로 답을 작성하여야 하며, 간혹 번역문학을 들어 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잘못된 작품선정은 감점의 요인이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 학생들이 잘 준비한 것으로 드러난 프로그램과 시험의 영역

**Criterion A**는 다른 영역에 비해 잘 준비되었다. 특히 작년 **subject report**에서 언급했던, 질문을 잘 파악하고 그에 대한 답을 구성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많은 향상을 보였다. 작년과 비교해서 질문과 무관하게 두 작품을 단순 비교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 점점 **Paper 2**의 시험 취지에 맞는 답안을 구성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독립적인 분석의 깊이도 보여주는 에세이들이 늘고 있다.

### 학생들이 각 문제를 대하는데 있어서의 강점과 약점

올해는 특히 특정 몇몇 문제에 치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장르로는 장편과 중단편 소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수필은 아주 소수의 학생들만이 선택하였다. 소설 문제 중에는 2번과 5번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이 두 문제 모두 배경에 관한 문제들로 학생들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작가의 두 작품으로 전체 에세이를 구성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반드시 두 작가의 작품으로 답해야 한다.

장편소설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매년 지적되는 작품인데 올해도 장편소설로 취급해 답한 학생들이 있었다. 감점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한다.

1. 학생들이 답하기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이다. 소수의 학생들만이 이 질문에 답을 하였다. 단순히 서술방식에 있어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구성하였는가로 해석해 답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2. 장소적 배경에 관한 질문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문제였다. 학생들이 공부한 작품들에서 작가의 장소적 선택과 설명은 작품의 주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학생들의 접근이 쉬웠다고 보인다. 장소에 대한 설명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루어야 한다. 작품에서의 모든 장소적 배경에 대한 설명의 나열이 아니라, 두 작품에서 장소적 배경의 활용이 어떠한 부분에서 공통점을 보이며 차이점을 보이는지 분석하고, 이것이 주제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한다.
3. 작품의 도입이나 결말의 발전양상과 효과에 대한 질문으로, 소수의 학생들이 선택했다. 주로 최인훈의 ‘광장’과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을 들어 답을 구성한 학생들이 많았다. 도입부분의 구체적인 문장을 예로 들어 이것이 어떻게 전체 작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풀어내고 주제와 연결시키는 인상적인 글도 있었다.

중단편소설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공부한 문학장르였다. 세 문제 중 특히 5번 문제에 편중되어 있다.

4. 서술자의 역할을 묻는 문제인데 주로 일인칭 시점으로 전개되는 소설을 택해 답한 학생들이 많았다. 김유정의 ‘봄봄’과 ‘동백꽃’, 채만식의 ‘치숙’,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등의 작품을 들어 질문에 답하였다. 서술자가 주인공인 경우와 관찰자인 경우를 비교 대조하였는데 작품 속에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 대답하고 있다. 대부분 질문에 초점을 맞춰 답하고 있으나 줄거리 위주의 글들도 꽤 있었다.
5.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질문으로 인상적이고 의미있는 배경을 설정한 효과에 대해 묻는 질문이다. 주로 장소적 배경을 들어 답한 학생들이 많았고 시대적 배경과 계절적 배경을 예로 들어 답한 학생들도 있었다. 줄거리 위주로 글을 구성하지 말아야 하고 의식적으로 **Criterion C** 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조연인물의 제시방법과 중요성을 묻는 질문이다. 소수의 학생들이 선택한 질문으로 중심인물과의 관계로 답을 이끌어가는 학생들이 많았다. 인물소개에 그치는 글도 있었는데 작품 속에서 선택한 조연인물이 어떻게 사건이나 갈등을 형성하고 결말과 주인공의 행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주제와의 연관성도 이끌어내야 한다.

시

시 장르를 공부한 학생들은 대부분 7번과 8번 문제를 선택해서 답하고 있다.

7. 시적 효과를 위해 시인이 제목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묻는 질문이다. 보통 시의 제목은 주제를 함축하고있는 경우가 많다. 각각의 시와 제목은 충분히 다루고 있으나 그 사용에 있어 대조가 약하게 드러난 경향이 있었다.

8. 시속에서 상징이 어떻게 개별성 안에서 보편성을 지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인데, 이문제를 선택한 학생 대부분이 두 시인의 여러 작품을 들어 질문에 답하고 있다. 단순 나열에 그치지 않고 질문에 초점을 맞춰 깊이 있는 분석이 돋보이는 글이 많았다.

9. 시의 형태적 면에서 시각적 표현의 사용을 묻는 질문이다. 소수의 학생들만이 이 질문을 택했다. 연과 행의구분과 반복법의 사용 등에 초점을 맞춘 글이 대부분이었다.

### 희곡

매년 적은 수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문학장르로 올해도 소수의 학생들이 공부한 문학장르였다.

10. 희곡을 공부한 학생 대부분이 선택한 질문으로 관객을 어떻게 작품 속 작가가 만들어낸 세계로 이끄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희곡의 장르적 특징으로 많은 학생들이 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무대배경이나 음향효과를 중심으로 쓴 학생들도 있었고 인물설정의 방법과 대사, 지문을 구체적인 근거로 들어 답한 학생이 많았다.

11. 선택한 학생이 거의 없어 논하기가 어렵다.

12. 희곡이 취할 수 있는 정치적, 도덕적, 철학적 입장을 묻는 질문으로 주로 유치진의 ‘토막’과 차범석의 ‘산불’을 예로 들어 비교 대조한 학생이 많았다. 문제의 특성상 작품의 내용과 사건에 초점을 맞춰 글을 전개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희곡의 장르적/형식적 특징들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 수필

희곡과 더불어 소수의 학생들만이 공부한 문학장르이다. 한 작가의 여러 작품으로만 답을 구성한 학생들이 있는데 반드시 두 수필가의 작품을 토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13. 선택한 학생이 거의 없어 논하기가 어렵다.

14. 수필을 선택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택한 질문이다. 수필문학의 가장 대표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관찰에 관한 질문으로 범정의 작품과 피천득, 김소운의 작품이 주로 다루어 졌다. 질문과 연관지어 내용적 측면은 잘 파악하고 또 그것을 작품의 주제와 잘 연결시키고 있지만, 내용의 전개 방식이나 문체적 측면을 다루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다.

15. 수필의 비평정신에 관한 질문으로 14 번 문제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내용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Criterion C** 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글이 있었다. 문제의 특성상 수필의 장르적 이해는 보이나 객관적인분석보다는 개인의 감상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 다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조언과 길잡이

매년 같은 과정을 가르치나 항상 **Subject Guide** 와 **Subject Report** 를 참고해서 실수를 줄여야 한다.

다음의 표는 **Paper 2** 의 **Criterion** 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으로,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Part 3** 에서 공부한 작품간의 비교·대조를 통한 분석이 핵심이다.

\*질문을 두 작품으로 풀어나가는 것인데, 질문에 대한 작품들의 공통점/유사점과 차이점/다른 점을 들어 진행해야 한다.

**Paper 2: Essay (HL)**

<p><b>Criterion A: Knowledge and understanding</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ow much knowledge and understanding has the student shown of the part 3 works studied in relation to the question answered?</li> </ul> <p>0 The work does not reach a standard described by the descriptors below.</p> <p>1 There is some knowledge but virtually no understanding of the part 3 works in relation to the question answered.</p> <p>2 There is mostly adequate knowledge and some superficial understanding of the part 3 works in relation to the question answered.</p> <p>3 There is adequat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part 3 works in relation to the question answered.</p> <p>4 There is good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part 3 works in relation to the question answered</p> <p>5 There is perceptiv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part 3 works in relation to the question answered.</p>	<p>안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p> <p><b>Criterion A</b>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이다.</p> <p>주장/설명하는 바를 단순 언급만 하는 것이 아닌 작품 속에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 뒷받침해야 한다. 이러한 근거들이 얼마나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느냐에 따라 점수가 나뉜다. 적절한 근거를 직접 인용의 나열로 취급하여 글을 전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p>
--	---

참고: Part3 의 작품들은 반드시 PLA 에서 선택해야 하고, 선택한 작품은 질문의 장르와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 criterion A 에서 3 점을 최고점으로 간주하여 채점한다.

<p><b>Criterion B: Response to the questio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ow well has the student understood the specific demands of the question?</li> <li>• To what extent has the student responded to these demands?</li> <li>• How well have the works been compared and contrasted in relation to the demands of the question?</li> </ul> <p>0 The work does not reach a standard described by the descriptors below.</p> <p>1 The student shows little awareness of the main implications of the question, and ideas are mainly irrelevant and/or insignificant. There is little meaningful comparison of the works used in relation to the question.</p> <p>2 The student responds to some of the main implications of the question with some relevant ideas. There is a superficial attempt to compare the works used in relation to the question.</p> <p>3 The student responds to most of the main implications of the question with consistently relevant ideas. There is adequate comparison of the works used in relation to the question.</p> <p>4 The student responds to the main implications and some subtleties of the question, with relevant and carefully explored ideas. The comparison makes some evaluation of the works used in relation to the question.</p> <p>5 The student responds to all the implications, as well as the subtleties of the question, with convincing and thoughtful ideas. The comparison includes an effective evaluation of the works in relation to the question.</p>	<p>작품간의 비교·대조를 통해 질문에 답하고 있나를 중점적으로 본다.</p> <p><b>Criterion B</b>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대조의 방식이다. 한 작품을 들어 답을 하고 다른 작품을 들어 이어서 답하는 형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질문에 두 작품을 들어 답하는 것이지 두 작품을 서로 비교·대조하면서 답을 구성하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이다.</p> <p>예를 들어 “이러한 면에서 공통점을 보인다면 이러한 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는 ~~~다”의 큰 형식을 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p> <p>질문을 잘 파악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비교·대조의 형식을 취해 글을 구성해야 한다.</p>
--	--

<p><b>Criterion C: Appreciation of the literary conventions of the genre</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 what extent does the student identify and appreciate the use of literary conventions in relation to the question and the works used?</li> </ul> <p>0 The work does not reach a standard described by the descriptors below.</p> <p>1 Some literary conventions are identified but there is limited development relevant to the question and/or the works used.</p> <p>2 Examples of literary conventions are sometimes correctly identified and developed, with some relevance to the question and the works used.</p> <p>3 Examples of literary conventions are satisfactorily identified and developed, with relevance to the question and the works used.</p> <p>4 Examples of literary conventions are clearly identified and effectively developed, with relevance to the question and the works used.</p> <p>5 Examples of literary conventions are perceptively identified and persuasively developed, with clear relevance to the question and the works used.</p>	<p>작가의 문체적 특성을 포함한 장르적 특징 등의 서술이다.</p> <p><b>Criterion C</b>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답을 구성하는 흐름 속에 적절히 <b>Criterion C</b> 의 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로 문단을 만들어 <b>Criterion C</b> 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p> <p>광의적으로 보면 인물, 구성, 사건, 배경 등의 설명도 이 <b>Criterion</b> 에 포함되나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루고 있는 작품만의 구체적인 문학적 특징이 다뤄져야 한다. 나열식의 언급만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 예를 들어 액자식 구성이라고 언급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액자식 구성이 작품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 효과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다뤄야 한다.</p>
---	--

<p><b>Criterion D: Organization and developmen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ow well organized, coherent and developed is the presentation of ideas?</li> </ul> <p>0 The work does not reach a standard described by the descriptors below.</p> <p>1 Ideas have little organization; there may be a superficial structure, but coherence and/or development are lacking.</p> <p>2 Ideas have some organization, with a recognizable structure, but coherence and development are often lacking.</p> <p>3 Ideas are adequately organized, with a suitable structure and attention paid to coherence and development.</p> <p>4 Ideas are effectively organized, with a very good structure, coherence and development.</p> <p>5 Ideas are persuasively organized, with excellent structure, coherence and development.</p>	<p>글의 흐름이다.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가? 글의 전개가 논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b>Criterion</b> 이다. 비교·대조의 방식은 <b>Criterion B</b> 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글 자체의 흐름만으로 판단하는 <b>Criterion</b> 이다.</p> <p>특히 서론이 중요한데 질문이나 주어진 토픽에 집중해서 두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 좋다. 질문이나 주어진 토픽과는 무관하게 소설, 시, 수필 등의 장르적 특징으로 서론을 시작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여러 질문에 서론만 연습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p>
---	--

<p><b>Criterion E: Language</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ow clear, varied and accurate is the language?</li> <li>• How appropriate is the choice of register, style and terminology? (“Register” refers, in this context, to the student’s use of elements such as vocabulary, tone, sentence structure and terminology appropriate to the task.)</li> </ul> <p>0 The work does not reach a standard described by the descriptors below.</p> <p>1 Language is rarely clear and appropriate; there are many errors in grammar, vocabulary and sentence construction, and little sense of register and style.</p> <p>2 Language is sometimes clear and carefully chosen; grammar, vocabulary and sentence construction are fairly accurate, although errors and inconsistencies are apparent; the register and style are to some extent appropriate to the task.</p> <p>3 Language is clear and carefully chosen, with an adequate degree of accuracy in grammar, vocabulary and sentence construction despite some lapses; register and style are mostly appropriate to the task.</p> <p>4 Language is clear and carefully chosen, with a good degree of accuracy in grammar, vocabulary and sentence construction; register and style are consistently appropriate to the task.</p> <p>5 Language is very clear, effective, carefully chosen and precise, with a high degree of accuracy in grammar, vocabulary and sentence construction; register and style are effective and appropriate to the task.</p>	<p>다른 <b>Criterion</b> 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점수가 나가는 부분이다.</p> <p>맞춤법도 중요하게 보지만 문장력을 중점적으로 본다.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가? 적절한 단어/종결어미를 구사하고 있는가? 글의 성격과 맞는 문장을 구사하고 있는가? 맞춤법이나 문법적 측면에서 계속되는 실수나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 문장의 통사구조가 올바른가? 등을 유념해서 준비해야 한다.</p>
---	---

간혹 답안지를 작성할 때 한 줄을 띄워 두 줄에 한 줄씩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는 채점자의 입장에서 아이디어나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Criterion** 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글씨도 중요한 요소이다. 단기간에 나아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하지만 너무 흘려 써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글씨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